

미래에셋증권 Daily

▶ TODAY'S REPORTS

Mirae Asset FI Weekly

민지희: 금리 상승의 이유와 대응 전략

Global ETF Tracker

손하연: 원자재 가격 모멘텀과 원유/가스 ETF

기업분석

오토데스크(ADSK US) - 김수진: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 진행 중
LG전자[매수] - 차유미: 노이즈를 건너 내면 보이는 가치

주체별 매매동향

KOSPI: 외국인 (-)6,624억원 순매도, 국내기관 (-)3,125억원 순매도
KOSDAQ: 외국인 (+)807억원 순매수, 국내기관 (-)1,246억원 순매도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II

2021. 9. 30 (목)

리서치센터

KOSPI (9/29)	3,060.27P(-37.65P)
KOSDAQ (9/29)	1,001.46P(-11.05P)
KOSPI200 (9/29)	400.09P(-6.11P)
미국 DowJones지수 (9/29)	34,390.72P(+90.73P)
미국 NASDAQ지수 (9/29)	14,512.44P(-34.24P)
중국상해종합지수 (9/29)	3,536.29P(-65.93P)
NIKKEI225지수 (9/29)	29,544.29P(-639.67P)
유럽 STOXX600지수 (9/28)	455.03P(+2.68P)
독일 DAX지수 (9/29)	15,365.27P(+116.71P)
VIX (9/29)	22.56P(-0.69P)
원/달러 환율 (9/29)	1,182.04(-2.56)
엔/달러 환율 (9/29)	111.96(+0.46)
달러/유로 환율 (9/29)	1.16(-0.01)
국고채 수익률(3년) (9/29)	1.60(-0.01)
미국채 10년 (9/29)	1.52(-0.02)
독일국채 10년 (9/29)	-0.21(-0.01)
금가격 (9/29)	1,721.50(-14.40)
구리가격 (9/28)	9,260.00(-68.00)
유가(WTI) (9/29)	74.83(-0.46)
국내주식형펀드증감 (9/27)	1,969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 (9/27)	410억원
고객예탁금 (9/28)	684,443억원(-1,776억원)
신용잔고 (9/28)	250,474억원(-1,013억원)
대차잔고 (9/29)	805,054억원(+44,280억원)

주: 현지 시간 기준

금리 상승의 이유와 대응 전략

민지희 jihee.min.a@miraeasset.com

FI Check Point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및 한국 10년 금리 2.2% 돌파하며 상승 흐름 지속

- 9월 FOMC 점도표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2022년으로 앞당겨졌음. 통화 긴축 우려에 9/28일 기준 미국 금리 1.53% 기록하며 크게 상승
- 글로벌 금리 상승 및 국내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에 국내 금리도 상승세 지속
- 한은의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및 원화 약세에 따라 원화채권 자본 이득 기회가 축소되며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심리 약화도 9월 중 국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Fixed Income
Market Issue

10월 한국은행 금통위, 매파적 기조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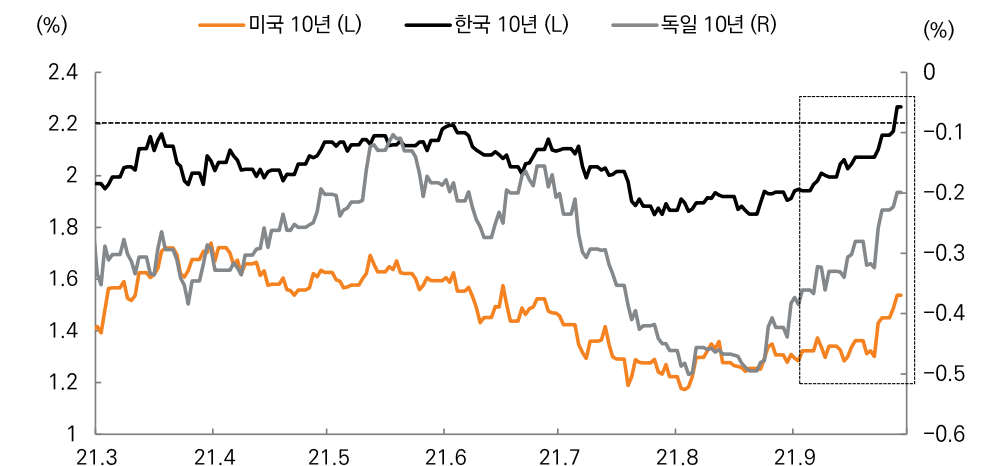
- 12일 한국은행 금통위 예정.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8월 금리 인상을 포함해 추가 25bp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
- 미 의회 양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부채한도 유예 법안은 결국 통과될 것으로 전망

Strategy

금리 상승의 이유와 대응 전략

- 미국 10년 금리 상승폭 확대하면서 미 증시 불안. 향후 위험 회피 심리 부각되며 미 장기금리 추가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 고려할 필요
- 장기물 대비 단기금리 레벨 메리트 더 높다고 판단. 장기물은 미국 장기금리 및 FX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그림 1.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한국 10년 금리는 9/28일 기준 연 고점을 상회하며 2.25%까지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1. 금리 상승의 이유: 연준의 빨라지는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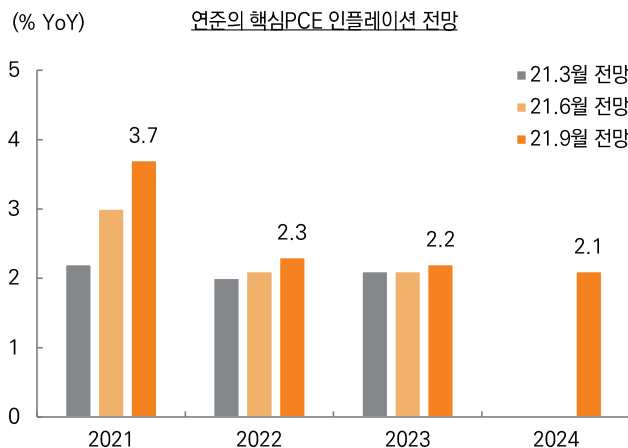
연준 금리 인상 시점 앞당겨지면서 통화정책 긴축 불안에 장기금리 상단 높아짐

9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2년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금리 역시 8월 금통위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9/28일 종가 기준 국고 3년 금리는 1.60%, 10년 금리는 2.25%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연이은 미 의회 증언(현지시간 9/27~28)에서 매파적 기조를 이어갔다. 현재와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미국 경제는 테이퍼링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금리는 델타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부분 통화정책 긴축 우려를 반영해 움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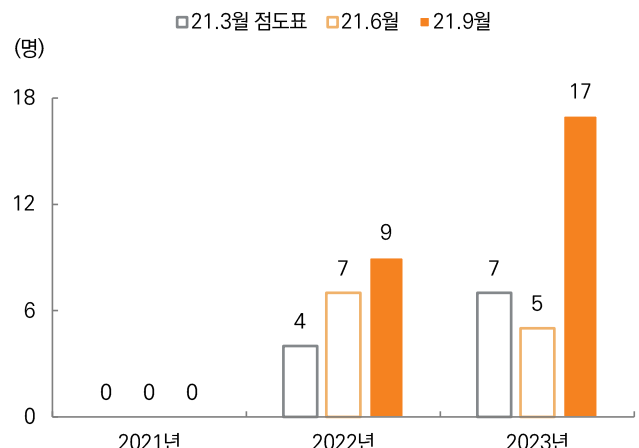
더불어 국내 금리 상승에는 최근의 원화 약세 흐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OMC에서 점도표가 공개될 때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흐름은 원화채권에 투기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연준의 핵심PCE 인플레이션 전망치 계속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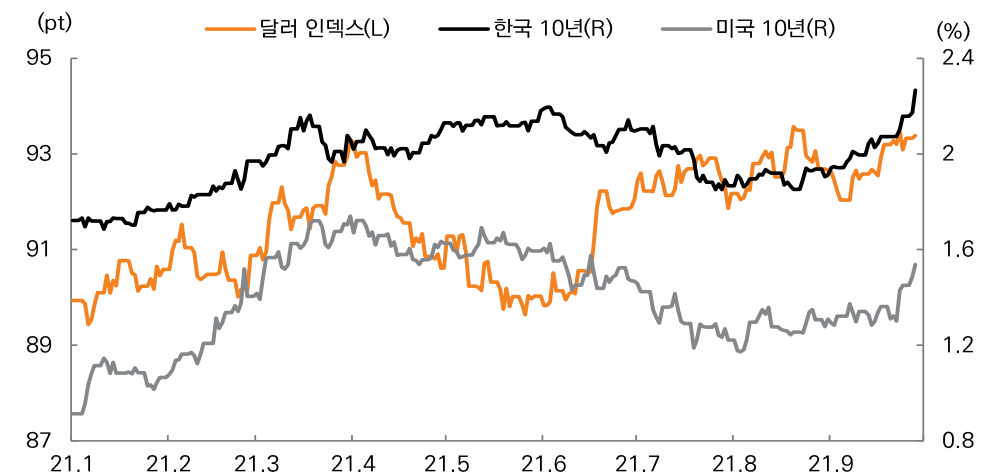
자료: FR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연준 위원의 수 계속 증가



자료: FR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에 달러 강세 보였고, 9월 한-미 장기금리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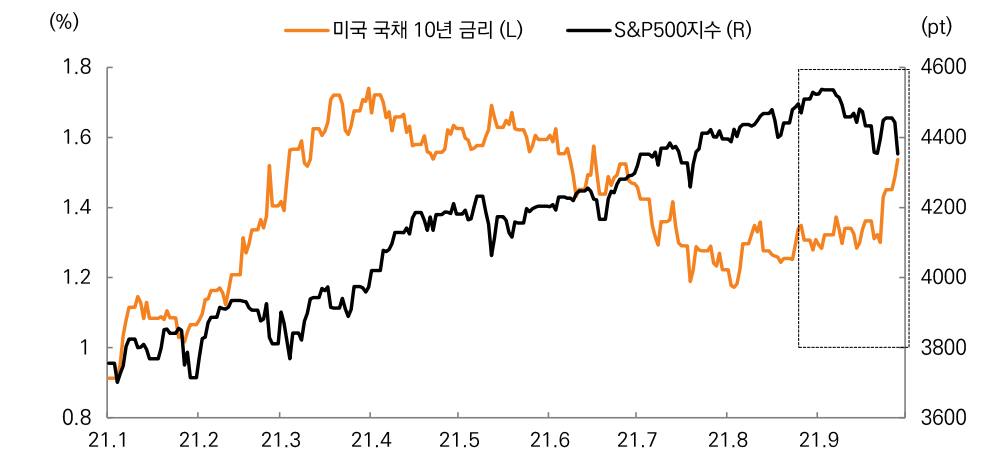
2.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1) 미국 금리 상승폭 확대에 따른 미 증시 불안은 위험 회피 심리를 부각시킬 것

연초에도 미국 금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부양책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기대감, 인플레이션 전망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정상화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며 S&P500 지수도 함께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우호적이었다(그림5).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있는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 11월로 다가온 연준 QE 테이퍼링 속도가 과거 테이퍼링(2014년)보다 빠를 가능성,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 장기금리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 5.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우려에 달러 강세 보이며 9월 한국과 미국 장기금리 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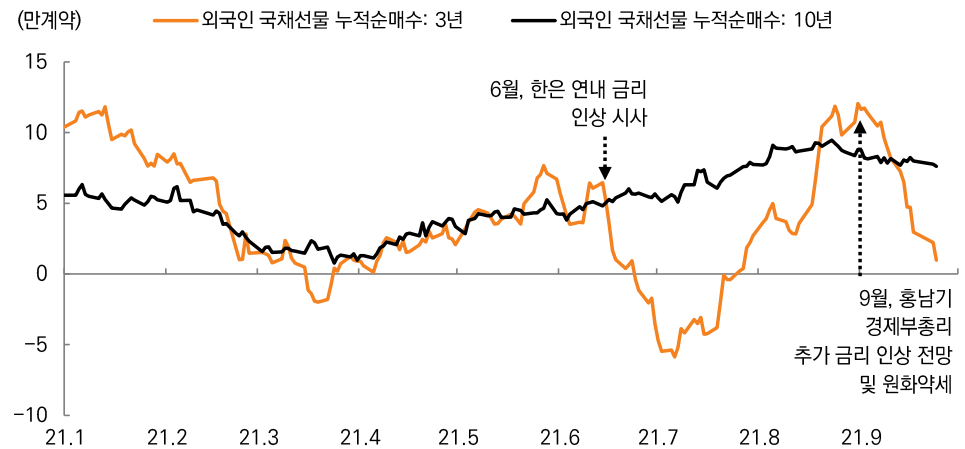
2) 국내 채권시장, 단기금리 레벨 메리트, 장기물은 미국 금리 및 FX 흐름 지켜볼 것

먼저 국내 채권시장은 장기물 대비 단기 금리의 레벨 메리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근거로는 1)기준금리를 1.25%까지 인상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국고 3년의 1.60% 금리 레벨은 높다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저가매수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며, 2)9월 중 외국인 투자자의 3년 국채선물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현재 포지션이 많이 정리된 부분이 있고(그림6), 3)장기물에 비해 듀레이션이 짧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9월 국내 채권금리 레벨 메리트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외국인 매도세를 포함해 국내 기관을 비롯해 뚜렷한 매수 주체는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한 가운데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당사의 FX 전망(9/27, FX Strategy 참고)에 따르면 달러의 원화 환율은 연말까지 현 수준인 1,175~1,180원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예상된다. 실제 연준의 금리 인상은 QE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내년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원화 약세 흐름이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금리는 앞서 언급한대로 1)미국 금리가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해 하락 안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2)향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림 6. 3사분기 들어 외국인의 3년 국채선물 수급 변동성 확대됨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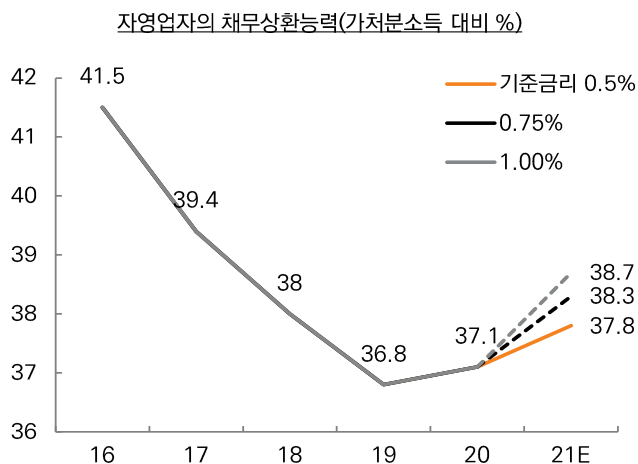
2. Fixed Income Market Issue: 한국은행 금통위와 미 의회 부채한도 협상

1)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및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효과 분석

우선 연말까지 남은 2차례 금통위 중 11월 회의에서 추가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기자회견담화를 통해 1)국내 경제 회복 경로가 예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2)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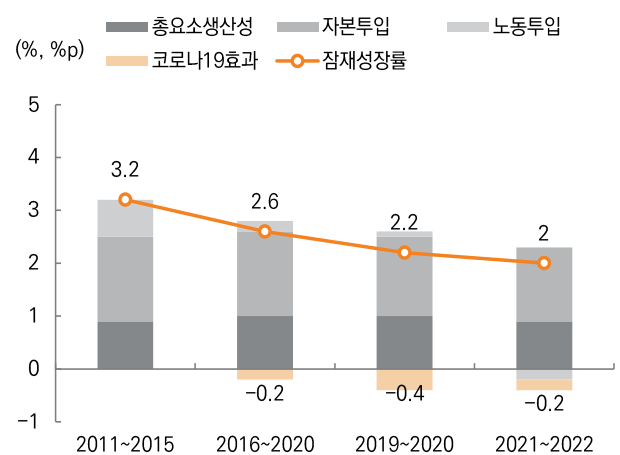
따라서 한은은 8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 및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델타 변이 확산이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점검 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국내 3Q GDP는 10/26 발표 예정). 다만 한은은 9/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DSR)이 기준금리 1.0% 수준에서도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만큼(그림7), 10월 금통위에서도 한은의 매파적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7. 추가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 채무건전성에 미칠 영향 제한적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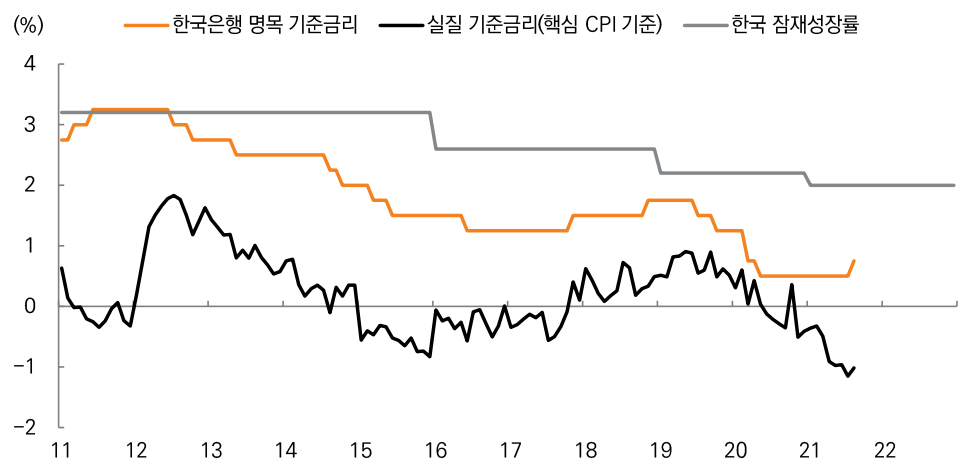
그림 8. 국내 팬데믹 장기화에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레이블은 각각 잠재성장률과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미친 마이너스 기여도.

그림 9.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국내 명목 기준금리의 정상 수준(normal level) 낮아질 수 있을 것



자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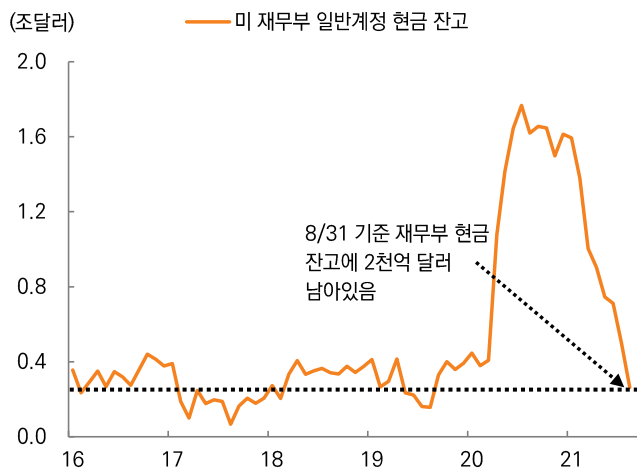
2) 미 의회, 부채한도 유예 및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

통화정책 이슈와 함께 9월 말부터 미 의회에서는 부채 한도 상향 및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추가 부양책 협상이 이뤄진다.

재무부의 현금 소진 속도가 빠르고(그림10), 현재 부채 한도를 넘어서 정부 부채 수준(그림12)으로 인해 민주당에서는 부채 한도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여 상원으로 넘긴 상태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판하며 부채한도 유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 하원의 과반이 넘는 의석 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서는 동 법안을 처리하고, 연방정부 디폴트를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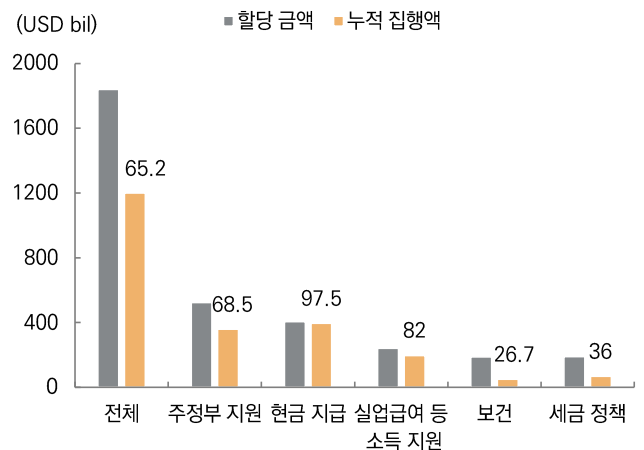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1차 부양책인 1.9조달러 규모의 “American Rescue Plan”은 현재까지 65% 정도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현금 지원 할당액은 대부분 소진한 상태다(그림11). 민주당에서는 추가 인프라 부양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의지를 꾸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미국 재무부 현금 소진 속도가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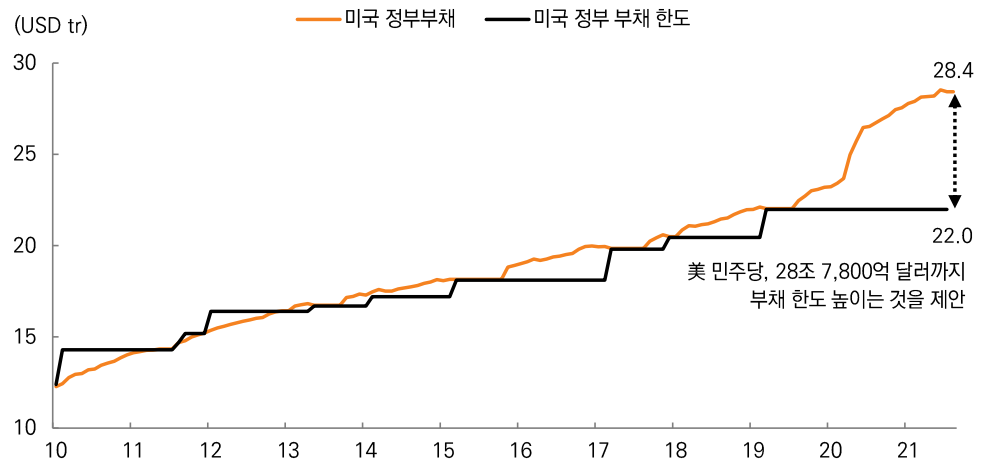
자료: 미 재무부,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바이든 1차 부양책 65% 집행 및 현금 지원 할당액 대부분 소진



자료: CRFB(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표시된 데이터 값은 할당액 대비 현재(9/27)까지 부양책 집행률(%)을 의미

그림 12. 미국 정부 부채 및 부채 한도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미 의회 부채한도 협상 과정 요약

현지시간 9/27일, 미 상원에서 부채한도 유예 및 12/3까지 임시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임시 예산안이 공화당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는 현재 부채한도 유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 첫다운 우려가 있으나, 민주당은 정부 첫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 법안을 분리시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현 시점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부결되더라도 재무부와 연준이 비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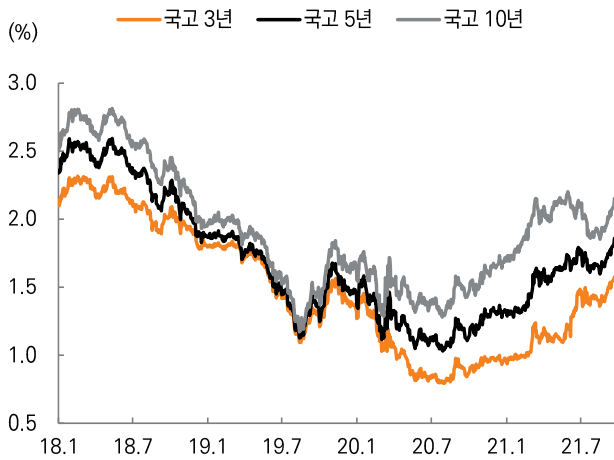
표 1. 미 의회 부채한도 협상 타임라인

날짜	주요 이벤트
2019-08-02	- 트럼프 대통령, 부채한도 2년 유예 및 예산안 서명(당시 부채 한도 22조 달러)
2021-06-23	- 엘리언 재무장관, 의회에 부채한도 상황 또는 유예 요청
2021-07-08	- 양당정책센터(BPS; Bipartisan Policy Centre), X-Date(재무부의 비상조치 및 현금계정(TGA)이 고갈되는 시점)을 10~11월로 예상
2021-07-21	- 미 의회예산국(CBO),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은 10월 또는 11월 정상적인 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
2021-07-23	- 엘리언 재무장관, 의회에 부채한도 상황 또는 유예 재차 요청, 8월 2일 이후 비상조치 실시 계획 발표.
2021-07-31	- 부채한도 적용 유예 기간 종료
2021-08-02	- 미 재무부, 비상조치 시작
2021-08-07	- 미 하원, 의회 휴회 시작(-9.19)
2021-08-14	- 미 상원, 의회 휴회 시작(-9.12)
2021-09-21	- 미 하원, 민주당 주도로 현 수준의 부채 한도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및 올해 12/3까지 임시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단기 예산안 통과
2021-09-22	- 파월 연준 의장,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실패시 시장에 심각한 충격"이라고 언급하며 미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진전을 촉구
2021-09-24	- 양당정책센터(BPS), 예상 X-date를 10/15~11/4로 조정
2021-09-27	- 미 상원, 부채한도 유예 법안 및 임시 예산안 동시 처리 부결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 반대, 찬성 48:반대 50) - 공화당, 임시 예산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에는 방만한 재정 운영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 3.5조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반발도 여전함 - 민주당, 연방정부 첫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을 분리하는 플랜B 고려 중
2021-09-28	- 엘리언 재무장관, 10월 18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비상조치가 소진될 것으로 추정
2021-09-30	- FY2021 회계연도 종료 - FY2022 예산안 처리 시한
2021-10-01	- 임시 예산안 부결 시 연방정부 첫다운(일시 업무정지) 예정

자료: Bipartisan Policy Centre, 언론 참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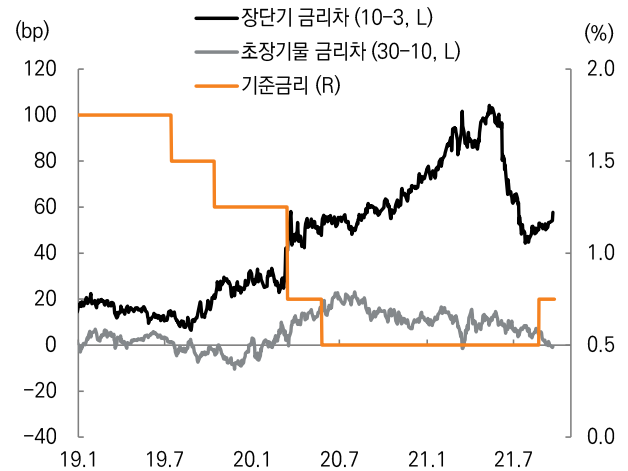
Fixed Income Market Chart

그림 13. 국고채 주요 금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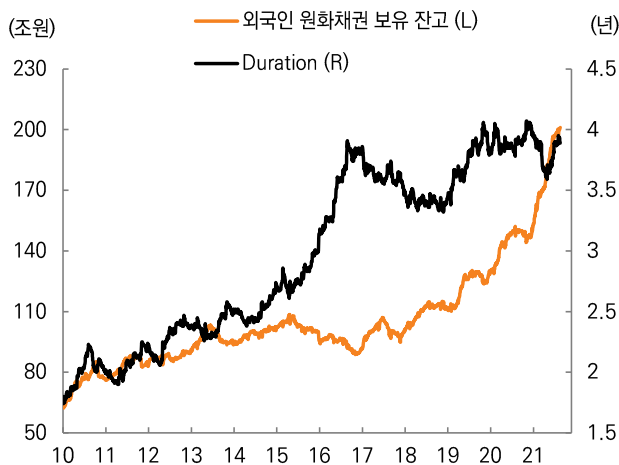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외국인의 원화채권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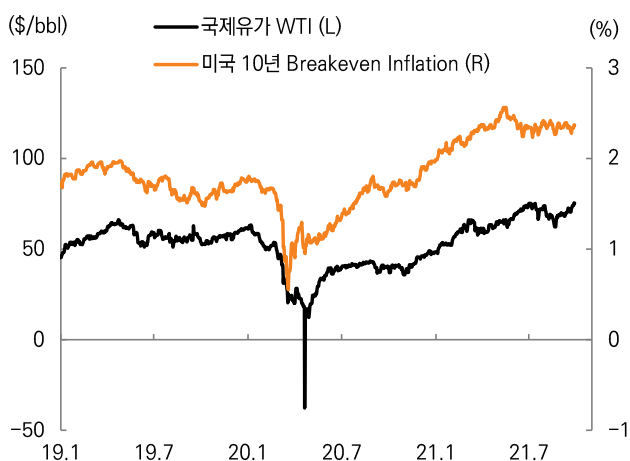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EMBI 스프레드와 미국 장기금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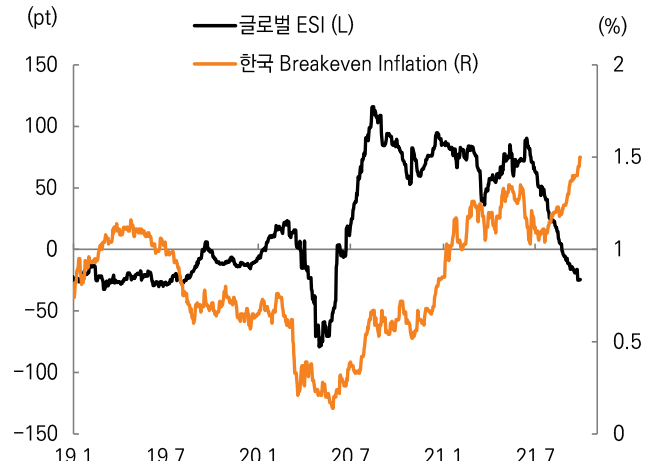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WTI 가격과 미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글로벌 경제와 한국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Market Monthly Schedul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9	8/30 (한국) 국고채 30년물 입찰 (2.8조원)	8/31 (한국) 국고채 바이백 시행 (1조원)	9/1	2	3 (미국) 8월 비농업 고용지표	4
5	6 (한국) 국고채 3년물 입찰 (2.2조원) (미국) 노동절 연휴	7 (한국) 국고채 2년물 입찰 (0.85조원)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미국) 국채 3년물 입찰 (580억달러)	8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 (380억달러) (캐나다) 통화정책회의	9 (한국) 국고채 50년물 입찰 (0.35조원) (미국) 국채 30년물 입찰 (240억달러) (유로존) ECB 9월 통화정책회의	10	11
12	13 (한국) 국고채 10년물 입찰 (2.3조원)	14 (한국) 한국은행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미국) 8월 CPI 발표	15	16	17	18
19	20 (한국) 추석 연휴	21 (미국) FOMC 회의 국채 20년물 입찰 (240억달러) (한국) 추석 연휴	22 (미국) FOMC 회의 *경제전망 발표 (한국) 추석 연휴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23 (미국) TIPS 10년물 입찰 (140억달러)	24	25
26	27 (한국) 국고채 5년물 입찰 (2조원) (미국) 국채 2년물 입찰 (600억달러) 국채 7년물 입찰 (610억달러)	28 (한국) 국고채 20년물 입찰 (0.5조원) (미국) 국채 7년물 입찰 (620억달러)	29	30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미국 재무부, FRB,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모멘텀과 원유/가스 ETF

손하연 hayeon_son@miraeeasset.com

- 전주(9/16~9/22) 선진국 주식형 ETF 순유출 전환. 신흥국 주식형 ETF는 신흥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 확대
- 섹터별로 리츠, 인프라, 에너지 섹터 ETF로 순유입 지속. IT, 헬스케어, 통신 ETF는 순유출 전환
- 수급 차질에 따른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강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 ETF 성과 기대

1. Weekly Hot ETFs

1) 선진국 주식형 ETF 자금 순유출

전주(9/16~9/22) 선진국 주식형 ETF에서 올해 2월 초 이후 처음으로 자금이 순유출되었는데 미국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과 세금 절감을 위한 Heartbeat Trade로 추정되는 물량이 선진국 ETF의 순유출 규모를 확대시켰던 요인으로 보인다(뱅크드 ETF인 VUG, VO, VTI, VB에서 9월 14~15일 대규모 자금 유입 이후 5일(9월 16~22일)에 걸쳐 자금 유출 양상을 띠). 한편, 신흥국 주식형 ETF로는 자금 유입 규모가 확대되었고, 신흥아시아 지역 ETF로 7월 말 이후 최대 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홍콩, 중국, 한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Tracker Fund of Hong Kong(4.7억 달러), China SSE 50 ETF(3.0억 달러), Samsung KODEX 200 ETF(2.5억 달러)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2) 리츠, 인프라, 에너지 ETF로 자금 순유입

섹터별로는 리츠(11주), 인프라(9주), 에너지(3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리츠 ETF 중에서는 주거용, 특수목적 리츠에 투자하는 iShares Residential and Multisector Real Estate ETF (REZ)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컸다(2.6억 달러, 유입강도 31%). 인프라 섹터 ETF의 경우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유입 규모는 3주째 축소되고 있다. 한편, IT ETF에서는 13주 만에 자금이 유출되었는데 테이퍼링 속도 부담과 국채금리 상승 기대가 기술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iShares U.S. Technology ETF (IYW)의 유출 규모(-8.1억 달러, 유입강도 -8.2%)가 컸다.

그림 1. 글로벌 주식형 지역별 ETF 자금 유입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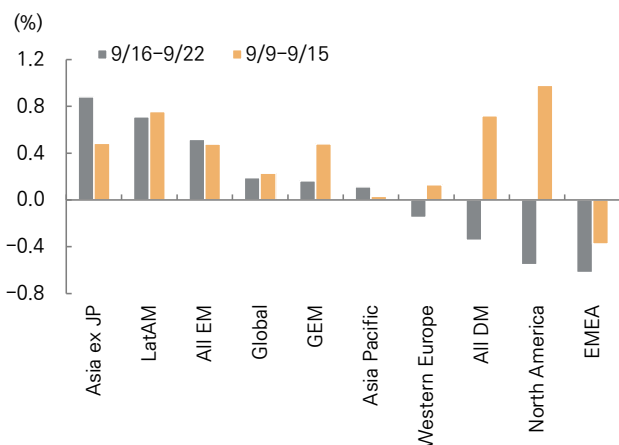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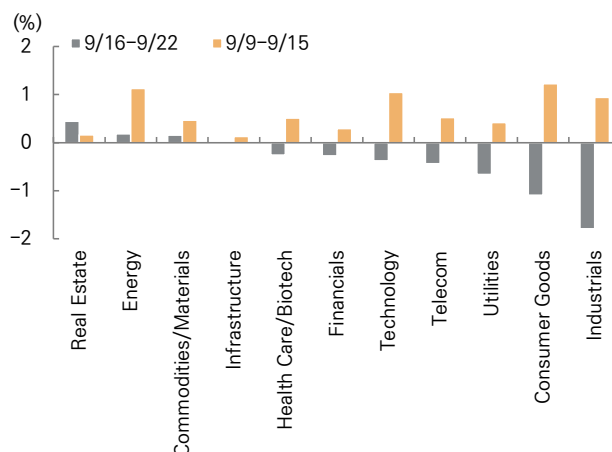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주식형 섹터별 ETF 자금 유입강도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주간(9/16-9/22) 자금 유출입 Top 10 ETF

순위	ETF명	Net inflows(\$mn)	유입강도 (%)	AUM (\$mn)	Domicile	Asset
1	Vanguard S&P 500 ETF	2,942	1.2	252,818	US	Equity
2	iShares Russell 2000 ETF	2,251	3.5	66,923	US	Equity
3	ProShares UltraPro QQQ	1,136	7.6	15,107	US	Equity
4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ETF	1,026	11.4	9,743	US	Equity
5	Invesco QQQ Trust	654	0.3	190,741	US	Equity
6	Vanguard Short-Term Bond ETF	590	1.4	41,996	US	Bond
7	Tracker Fund of Hong Kong	467	3.8	12,226	HK	Equity
8	MAXIS TOPIX ETF	463	2.0	22,465	JP	Equity
9	iShares MSCI USA Momentum Factor ETF	448	3.0	15,201	US	Equity
10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445	3.3	13,826	US	Bond
1	SPDR S&P 500 ETF Trust	-5,802	-1.4	395,460	US	Equity
2	Vanguard Growth ETF	-3,634	-4.1	84,537	US	Equity
3	Vanguard Mid-Cap ETF	-3,107	-5.5	52,259	US	Equity
4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2,932	-1.1	267,597	US	Equity
5	Vanguard Small-Cap ETF	-2,116	-4.2	47,308	US	Equity
6	iShares Core S&P 500 ETF	-1,390	-0.5	298,235	US	Equity
7	Invesco S&P 500 Equal Weight ETF	-1,346	-4.4	28,850	US	Equity
8	Vanguard Small-Cap Growth ETF	-1,152	-6.6	16,415	US	Equity
9	SPDR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ETF	-1,130	-3.7	28,867	US	Equity
10	Vanguard Mid-Cap Growth ETF	-1,104	-8.5	11,778	US	Equity

표 2. 지역별 최근 4주 자금 유출입

Global Equity		9/16-9/22	9/9-9/15	9/2-9/8	8/26-9/1	Global Bond		9/16-9/22	9/9-9/15	9/2-9/8	8/26-9/1
Developed market	North America	-28,629	44,547	2,472	12,423	Developed market	North America	8,158	8,539	6,364	7,904
	ETF	-26,178	46,197	3,728	15,367		ETF	5,521	4,772	3,287	3,016
	Non ETF	-2,450	-1,650	-1,257	-2,944		Non ETF	2,637	3,768	3,077	4,888
	Western Europe	-1,767	139	93	-578		Western Europe	-108	2,914	1,278	1,967
	ETF	-548	475	337	-553		ETF	266	1,145	800	564
	Non ETF	-1,219	-336	-244	-25		Non ETF	-374	1,769	478	1,403
	Asia Pacific	1,139	22	-1,396	304		Asia Pacific	5	8	4	328
	ETF	757	204	-829	132		ETF	-11	20	15	15
	Non ETF	383	-182	-567	172		Non ETF	16	-12	-11	313
	Global	2,464	4,644	8,457	2,736		Global	3,035	3,268	2,771	1,627
Emerging market	ETF	2,106	2,531	4,002	1,443	Emerging market	ETF	676	702	171	208
	Non ETF	358	2,114	4,455	1,293		Non ETF	2,360	2,566	2,600	1,419
	DM-Total (ETF)	-23,863	49,408	7,239	16,389		DM-Total (ETF)	6,452	6,639	4,273	3,802
	GEM	-93	474	402	1,774		GEM	-913	858	638	846
	ETF	540	1,581	305	1,089		ETF	-522	743	549	66
	Non ETF	-633	-1,107	97	685		Non ETF	-391	115	89	780
	Asia ex-Japan	2,746	1,361	2,490	2,766		Asia-ex JP	-179	541	1,412	188
	ETF	2,992	1,661	1,889	2,961		ETF	516	365	550	-205
	Non ETF	-245	-300	600	-195		Non ETF	-696	176	862	394
	Latin America	87	103	199	-309		Latin America	-68	-74	82	-96
	ETF	175	182	211	-322		ETF	-5	0	0	0
	Non ETF	-88	-80	-12	13		Non ETF	-63	-74	82	-96
	EMEA	-131	-125	8	122		EMEA	55	76	78	-21
	ETF	-68	-41	8	-29		ETF	22	17	-5	3
	Non ETF	-64	-84	0	151		Non ETF	33	59	83	-24
	EM-Total (ETF)	3,639	3,383	2,414	3,699		EM-Total (ETF)	11	1,124	1,095	-137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ETF Pick: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9월 이후 에너지 섹터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전주(9/16-9/22)에는 에너지 ETF 중 오일과 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XOP)의 자금 유입 규모가 컸다. 9월 미국 상장 ETF의 MTD 수익률을 보더라도 상위에는 FRAK(비전통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 MTD 21.5%), FCG(천연가스 기업, +21.1%), XOP(오일&가스 기업, +17.8%) ETF들이 랭크되었는데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강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WTI)는 75달러를 상회하며 전고점 수준으로 상승했고 천연가스 선물가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여객 회복, 겨울철 난방 등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멕시코만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졌다.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풍력 발전 비중을 높인 상황에서 풍력 발전량 감소와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렸고 러시아에서 유럽향 천연가스 수출량을 줄이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 재고도 낮은 수준인데 미국 원유 재고는 4.14억 배럴로 2018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도 5개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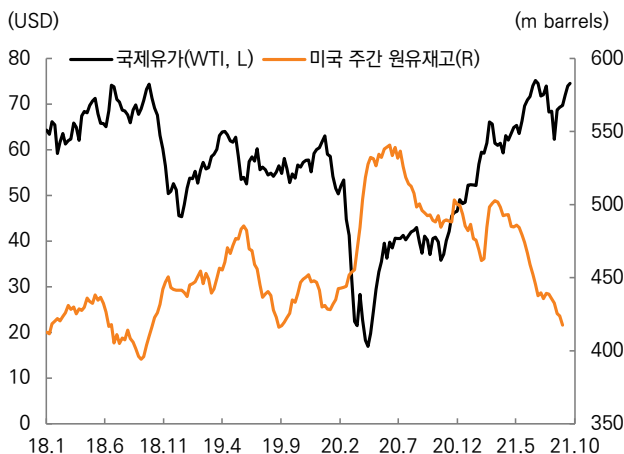
최근 오일과 천연가스 관련 ETF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었으나 수급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 상승 수혜가 기대되는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주목한다. 대표 ETF로는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XOP), First Trust Natural Gas ETF (FCG), iShares U.S.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IEO)가 있다. 천연가스 선물가격을 추종하는 BOIL(2X 레버리지) ETF도 있으나 배당수익이 없고 변동성이 높은 만큼 오일과 가스 기업을 편입하는 ETF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표 3. 원유&가스 ETF

티커	ETF명	AUM (USD mn)	수익률 %				구성 종목	20일 거래량 (주, 1000)	20일 거래대금 (USD mn)	설정일	수수료 %
			1W	1M	3M	1Y					
XOP US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4,046	15.1	16.7	2.0	122.5	59	7,025	614.2	2006-06-22	0.35
FCG US	First Trust Natural Gas ETF	336	15.8	20.3	5.8	168.3	42	1,380	20.7	2007-05-11	0.60
IEO US	iShares US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296	12.9	13.1	3.7	113.4	53	119	6.2	2006-05-05	0.42
BOIL US	ProShares Ultra Bloomberg Natural Gas	105	40.8	66.4	140.5	98.4	8	884	56.8	2011-10-06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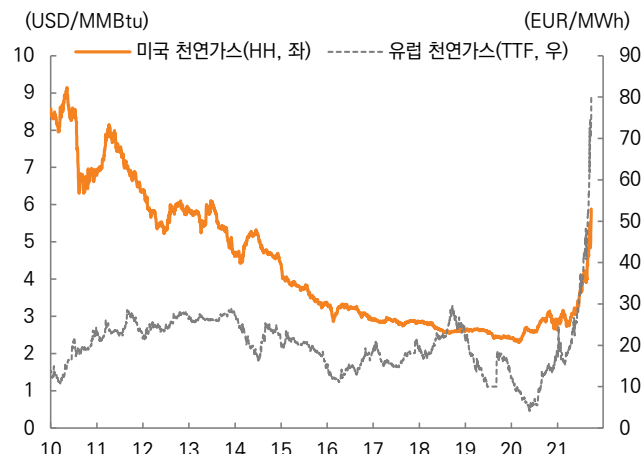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BOIL은 천연가스 선물 가격 추종 2X 레버리지 ETF

그림 3. 국제유가 가격 상승세, 원유 재고는 감소 지속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미국(HH), 유럽 (TTF) 천연가스 가격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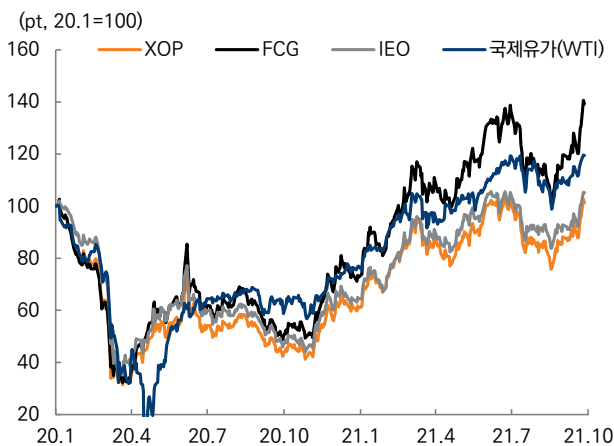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XOP)는 동일가중 방식으로 기업을 편입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형주(35%), 중형주(37%), 소형주(27%) 전반에 투자한다. 업종별로는 원유/가스 탐사 및 생산 기업 비중이 70%, 원유/가스 정제 및 마케팅 기업 23%순으로 높다. 운용자산이 40.5억 달러로 원유 및 가스 탐사/생산 ETF 중 가장 크고 수수료가 0.35%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강점이다.

First Trust Natural Gas ETF (FCG)는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미드스트림과 관련된 기업 및 MLP에 투자하는 ETF로 ISE-REVERE 천연가스지수를 추종한다. 시가총액 2.5억 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량 1백만 달러 이상을 충족하여야 지수에 편입된다. 지수는 기업 85%, MLP 15%로 구성되고 종목별 가중치는 시가총액과 유동성 순위를 통해 결정되며 4.5%를 초과할 수 없다. 천연가스 매출이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점은 강점이나 수수료는 0.60%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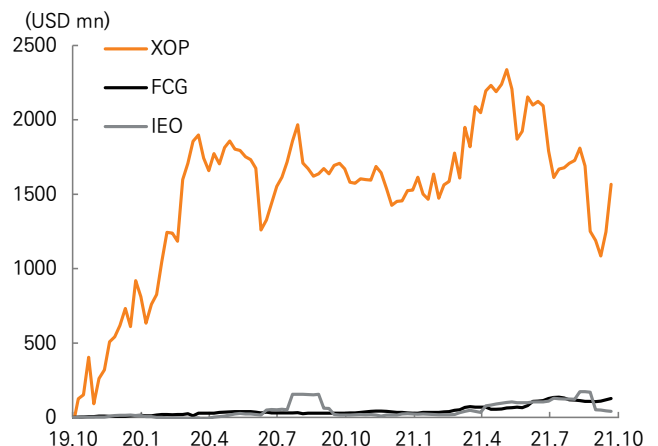
iShares US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IEO)는 수정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여 대형주 비중이 69%로 높아 XOP보다는 변동성이 낮다(중형주 비중 25%, 소형주 6%). 수수료는 0.42%로 좀더 높다. 업종별로는 오일/가스 탐사 및 생산기업 74%, 오일/가스 정제, 마케팅, 운송 19%, 오일/가스 보관 및 운송 7%의 비중을 보인다.

그림 5. 원유&가스 ETF 성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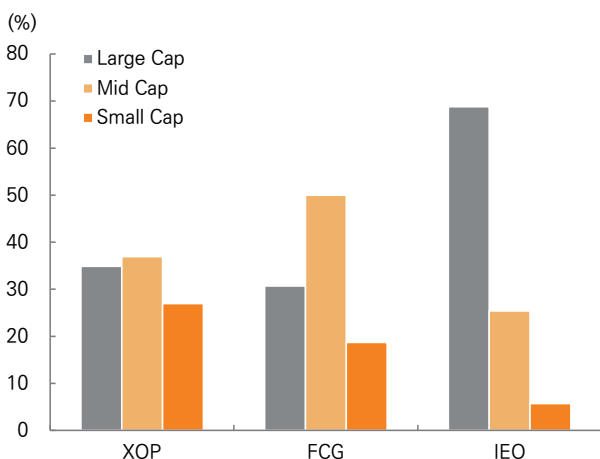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원유&가스 ETF 자금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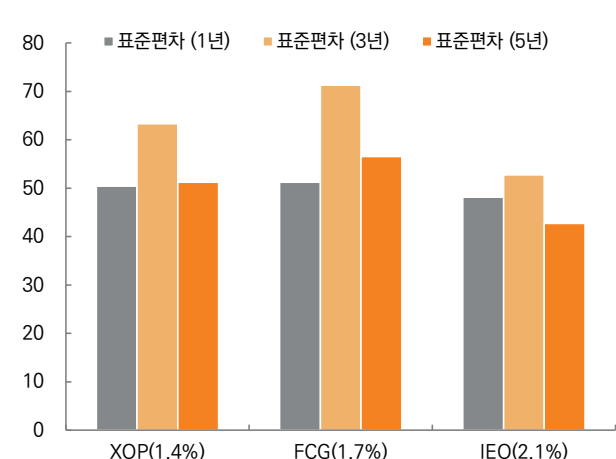
자료: EPF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원유&가스 ETF 시가총액별 비중



자료: Factse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원유&가스 ETF 변동성 비교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괄호안 수치는 최근 12개월 배당 수익률

표 4. 원유&가스 ETF 상위 구성종목 비교

ETF/상위 구성종목	티커	비중 %	시가총액 (USD bn)	EPS Growth (FY1)	EPS Growth (FY2)	12MF PE (X)	수익률 1M (%)	수익률 3M (%)	수익률 1Y (%)
SPDR S&P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XOP	26.0*							
Callon Petroleum Co	CPE US	2.9	2.2	177.9	47	4.4	38.0	-15.8	858.2
SM Energy Co	SM US	2.7	3.1	139.6	2401	14.9	34.2	6.2	1477.8
Range Resources Corp	RRC US	2.6	5.6	2027.8	36	9.8	42.3	33.6	214.6
Diamondback Energy Inc	FANG US	2.6	17.2	200.0	39	7.4	23.9	2.5	204.4
Devon Energy Corp	DVN US	2.5	23.8	9553.3	39	9.6	17.3	27.1	277.9
APA Corp	APA US	2.5	8.2	207.3	-5	6.8	15.7	3.1	127.4
PBF Energy Inc	PBF US	2.5	1.6	55.0	92	-	21.2	-10.3	124.4
Continental Resources Inc/OK	CLR US	2.5	17.2	446.6	-9	12.3	21.4	25.9	278.8
EOG Resources Inc	EOG US	2.5	47.7	423.6	7	10.2	17.4	0.6	128.7
Marathon Oil Corp	MRO US	2.5	10.8	186.4	18	12.1	14.6	3.2	230.8
First Trust Natural Gas ETF	FCG	41.3*							
ConocoPhillips	COP US	4.5	90.8	600.0	14	12.7	19.5	14.8	108.9
EOG Resources Inc	EOG US	4.4	47.7	423.6	7	10.2	17.4	0.6	128.7
Occidental Petroleum Corp	OXY US	4.3	27.9	132.5	-14	26.1	16.5	-4.5	199.3
Pioneer Natural Resources Co	PXD US	4.2	41.4	832.4	54	9.9	12.9	8.0	98.3
Devon Energy Corp	DVN US	4.2	23.8	9553.3	39	9.6	17.3	27.1	277.9
Diamondback Energy Inc	FANG US	4.0	17.2	200.0	39	7.4	23.9	2.5	204.4
DCP Midstream LP	DCP US	4.0	5.8	54.7	86	12.0	2.7	-4.1	144.8
Western Midstream Partners LP	WES US	3.9	8.6	49.2	17	8.1	5.3	-2.0	160.0
Cabot Oil & Gas Corp	COG US	3.9	8.7	241.3	33	9.5	39.6	34.0	23.7
Hess Corp	HES US	3.9	24.4	171.7	118	20.0	12.6	-8.7	93.3
iShares US Oil & Gas Exploration & Production ETF	IEO	67.7*							
ConocoPhillips	COP US	17.6	90.8	600.0	14	12.7	19.5	14.8	108.9
EOG Resources Inc	EOG US	9.4	47.7	423.6	7	10.2	17.4	0.6	128.7
Marathon Petroleum Corp	MPC US	7.9	39.9	128.0	230	23.9	4.1	4.0	112.4
Pioneer Natural Resources Co	PXD US	7.5	41.4	832.4	54	9.9	12.9	8.0	98.3
Devon Energy Corp	DVN US	4.8	23.8	9553.3	39	9.6	17.3	27.1	277.9
Hess Corp	HES US	4.4	24.4	171.7	118	20.0	12.6	-8.7	93.3
Valero Energy Corp	VLO US	4.3	29.1	98.5	10409	19.8	6.0	-7.5	63.9
Cheniere Energy Inc	LNG US	4.1	24.6	248.8	59	15.5	8.1	12.4	99.7
Phillips 66	PSX US	4.1	31.1	291.3	227	15.5	-2.3	-16.7	35.9
Diamondback Energy Inc	FANG US	3.6	17.2	200.0	39	7.4	23.9	2.5	204.4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는 상위 10개 구성 종목 합

오토데스크 Autodesk (ADSK US)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성장통 진행 중

Bloomberg
최고목표주가USD 400.00
상승여력: 39.0%

김수진 soojin.kim@miraeasset.com

FY2Q22 리뷰

실적 예상 상회, 영업이익률 30% 돌파 유지

- 매출 10.6억달러, Billings 10.2억달러, Non-GAAP EPS
- Non-GAAP 총이익률 92%, 영업이익률 31%, 잉여현금흐름 1.86억달러
- Direct 판매 채널 증가: 전체 매출의 34%(매출 증가율 31% YoY)이며, 신규 유입 고객의 3/4가 직접 판매 채널 → 리셀러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마진 개선에 효과적
- 산업군별 플랫폼 형태 신규제품 호조 지속: 2월 런칭한 Autodesk Build 프로젝트 진행 건수 1만건 돌파, Fusion360 총 구독자수 16.5만건

Investor day 9월 1일 개최

2023년 목표치 제시

- 2021년 전망치는 그대로 매출 36.7~37.7억달러(+12~15% YoY), FCF 13~14억달러
- 2023년 목표: 매출증가율 매년 16~18%, FCF 24억달러

전망 및 밸류에이션

2024년 매출 감소 우려 부각: 일시적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

- 동사는 2024년부터 기업 고객의 매출 인식 방식이 변경된다고 언급
- 기존: 3년 비용 선지급시 10% 할인 제공으로 3년치 매출이 한번에 인식
- 변경 이후: 선지급 할인 사라지고, 연간 구독 모델로 전환
- 이로 인해 3년 후인 2024년 현금 유입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주가 하락 유발
- 하지만 구독 모델 전환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구독 모델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수익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시적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
-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BIM360, BuildingsConnected, 메타버스와 연관된 마야, 3D Max 등의 3D 모델링 솔루션 등의 강세가 기대되기 때문에 우상향 스토리 지속될 것으로 전망

Key data



현재주가 (21/09/28, USD)

287.85

시가총액(십억USD)

63.28

거래소

NASDAQ

시가총액(조원)

74.9

EPS 성장률 (22F, %)

-

P/E(22F, x)

57.8

MKT P/E(22F, x)

21.5

배당수익률(%)

-

Bloomberg Rating

매수	보유	매도
68%	21%	11%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8.8	6.3	23.6
상대주가	-5.5	-3.0	-5.3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계산기 (1월)	1/19	1/20	1/21	1/22F	1/23F	1/24F
매출액 (십억USD)	2.6	3.3	3.8	4.4	5.2	5.9
영업이익 (십억USD)	0.0	0.3	0.6	1.4	1.9	2.3
영업이익률 (%)	0.0	0.0	0.0	31.1	37.0	39.2
순이익 (십억USD)	-0.08	0.21	1.21	0.55	0.95	1.25
EPS (USD)	0.00	0.00	0.01	2.46	4.53	5.66
ROE (%)	-	-	-	78.4	70.2	65.4
P/E (배)	-	0.2	0.1	57.8	41.1	33.4
P/B (배)	-	-	0.1	46.1	25.6	15.8

주: GAAP

자료: 오토데스크,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노이즈를 걷어 내면 보이는 가치

매수
(유지)목표가: 190,000원 ▼
상승여력: 43.4%

차유미 yumi_cha@miraeeasset.com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및
목표주가 '190,000원'으로 조정

공든 탑이 무너지라. 다만 아쉬운 영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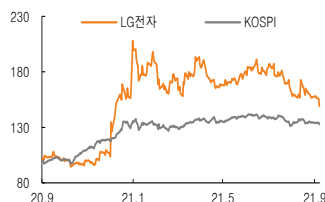
-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190,000원(기존 240,000원)으로 26% 하향 조정
- 부품 수급 이슈로 OEM 생산차질이 장기화되며 물류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 사업부별 22년 EBITDA 적정 가치 하향 조정
- 중장기 성장의 초점은 전장과 소프트웨어. 최근 사이벨럼(자동차 보안업체)과 알폰소(데이터 분석업체) 인수를 통해 하드웨어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경쟁력 확대
- 의심 없는 성장성과 방향.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숫자

3Q21 Preview

3Q21 매출액 18.4조원(+19.4% YoY) 및 영업이익 1.0조원(-2.6% YoY) 예상

- H&A: 북미 주택 경기 회복세가 가전 수요를 견인하며 3Q21 매출액은 6.9조원 예상
-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 성장하며 계절성 탈피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물류비 증가로 4분기 수익성 우려
- 북미 지역 내 가처분 소득 평균이 증가하며, 기존 중저가 제품 중심의 판매에서 프리미엄/신가전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HE: 3Q21 매출액 4.3조(+16.7% YoY) 및 영업이익 2,562억원(-20.2% YoY) 예상. 4분기 이후 TV 출하량이 감소하며 20년과 같은 Q+P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VS: GM 볼트 리콜 관련 추가 총당금 설정 여부에 따른 단기 리스크 존재
- BEP 달성 이후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 기대. 2023년까지의 VS사업부 연평균 성장률은 +30% 수준으로, 높은 성장률은 신규 수주 확대에서 기인
- BS: 게이밍 모니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웨이퍼 가격 인상과 ID사업의 B2B 영업 정상화가 지연되며 3Q 영업이익은 339억원(-36.5% YoY) 예상

Key data



현재주가(21/9/28,원)	132,500	시가총액(십억원)	21,683
영업이익(21F,십억원)	4,558	발행주식수(백만주)	181
Consensus 영업이익(21F,십억원)	4,701	유동주식비율(%)	65.6
EPS 성장률(21F,%)	0.2	외국인 보유비중(%)	30.3
P/E(21F,x)	12.2	베타(12M) 일간수익률	1.48
MKT P/E(21F,x)	11.1	52주 최저가(원)	84,000
KOSPI	3,097.92	52주 최고가(원)	185,000

Share performance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7	-7.3	44.5
상대주가	-4.6	-9.0	7.7

Earnings and valuation metrics

결산기 (12월)	2018	2019	2020	2021F	2022F	2023F
매출액 (십억원)	61,342	62,306	63,262	71,177	72,655	76,552
영업이익 (십억원)	2,703	2,436	3,195	4,558	5,034	5,312
영업이익률 (%)	4.4	3.9	5.1	6.4	6.9	6.9
순이익 (십억원)	1,240	31	1,968	1,972	3,605	3,834
EPS (원)	6,858	173	10,885	10,905	19,938	21,202
ROE (%)	9.0	0.2	13.2	11.9	18.6	16.7
P/E (배)	9.1	416.8	12.4	12.2	6.6	6.2
P/B (배)	0.8	0.9	1.6	1.3	1.1	1.0
배당수익률 (%)	1.2	1.0	0.9	0.9	0.9	0.9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LG전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체별 매매 동향

2021. 9. 30(목)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3125.7 / 5일 -14233.3)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6624.9 / 5일 10602.3)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화학	690.5	591.2	전기전자	-3,302.3	-6,187.7	화학	542.3	4,974.2	전기전자	-6,122.7	6,067.3
운수장비	175.8	-988.4	의약품	-371.4	-5,873.2	통신업	157.5	171.4	서비스업	-355.9	-1,203.2
비금속광물	123.4	-138.4	운수창고업	-243.0	538.7	은행	70.9	1,016.0	운수창고업	-331.8	1,927.1
전기가스업	118.0	17.5	음식료품	-134.5	-159.1	음식료품	69.4	16.0	유통업	-194.8	-401.7
서비스업	99.3	-863.6	철강금속	-131.9	-1,660.9	종이목재	45.4	14.3	보험업	-162.5	154.1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코스닥150	830.3	210.3	삼성전자	-1,859.0	-4,919.9	SK이노베이션	446.3	1,735.4	삼성전자	-4,179.8	5,582.1
SK이노베이션	369.8	814.7	KODEX 레버리지	-680.0	-217.3	KB금융	265.0	807.2	SK하이닉스	-912.0	1,202.4
KODEX코스닥150선물인버스	320.1	263.7	SK하이닉스	-667.1	-530.3	SK바이오사이언스	120.6	669.8	삼성전자우	-794.6	-115.7
한화솔루션	238.6	483.9	LG전자	-266.2	-923.4	카카오뱅크	98.8	955.9	HMM	-319.0	812.5
크래프톤	220.4	1,221.2	NAVER	-243.7	-1,340.1	일진머티리얼즈	97.5	87.9	KODEX 200	-274.1	-129.6
KODEX 인버스	218.2	82.8	TIGER P&G	-214.1	-419.0	넷마블	94.8	51.1	카카오	-216.8	-357.5
현대중공업	183.0	2,008.0	SK바이오사이언스	-207.0	-4,286.6	코오롱인더	93.3	37.3	LG화학	-168.9	1,804.6
포스코케미칼	167.8	-46.4	삼성전자우	-194.1	-205.7	대한항공	84.3	1,022.0	셀트리온	-159.6	242.1
KODEX 200	162.1	-8.2	HMM	-171.6	-116.6	롯데정밀화학	83.2	81.4	두산중공업	-139.1	-289.4
LG화학	109.5	663.1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8.8	-242.3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8.3	3.1	팬오션	-133.5	156.4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1246.2 / 5일 -5172.7)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807.8 / 5일 -1010.4)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디지털컨텐츠	113.1	-202.1	반도체	-279.7	-276.6	소프트웨어	170.9	222.5	일반전기전자	-195.1	517.5
오락,문화	82.3	294.0	IT부품	-172.9	-1,451.1	기계,장비	162.5	180.7	오락,문화	-189.8	55.0
비금속	17.4	-71.5	제약	-137.9	-1,014.0	화학	141.9	-536.6	금속	-51.8	-26.4
금속	17.0	-4.6	기타서비스	-78.6	-517.0	기타서비스	130.4	342.8	건설	-15.1	-65.8
기계,장비	13.0	-179.5	일반전기전자	-77.5	-435.1	제약	118.0	-29.4	운송	-11.5	11.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9.4	54.4	실리콘투	-367.1	0.0	아난티	147.8	124.5	에코프로비엠	-286.2	555.4
위메이드	51.9	-406.1	엘앤에프	-183.7	-838.0	캠트로스	62.7	-113.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11.4	-23.9
테브시스터즈	37.9	23.1	에스앤디	-67.3	0.0	아프리카TV	58.8	131.2	원익IPS	-86.1	-51.1
JYP Ent.	34.4	71.1	에스티팜	-59.5	-41.0	네이처셀	58.4	35.0	지에스이	-81.0	1.0
에코프로	31.2	-103.1	엔케이맥스	-59.2	-129.6	덕산네오룩스	56.8	123.5	현대바이오	-81.0	35.3
에코프로에이치엔	24.2	32.3	아프리카TV	-53.4	-90.3	대아티아이	53.1	73.4	대주전자재료	-73.9	55.9
국전약품	23.7	5.2	덕산네오룩스	-52.6	-163.5	카카오게임즈	51.3	-26.4	펄어비스	-69.4	-192.7
씨아이에스	22.2	-38.9	비에이치	-43.3	-27.8	천보	51.0	-282.2	실리콘투	-66.8	0.0
엠게임	17.3	-6.7	이오테크닉스	-42.8	-16.3	상아프론테크	50.2	-34.6	셀트리온헬스케어	-59.0	-20.4
보광산업	16.1	-0.9	덕산테크피아	-36.9	-67.6	오스템임플란트	45.6	144.8	삼강엠엔티	-48.8	63.7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 ETF 거래는 LP 거래량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이노베이션	23,437.6	SKC	-7,203.9	KODEX 200	56,397.6	삼성전자	-56,449.7
KODEX 레버리지	20,323.1	SK하이닉스	-7,098.8	크래프톤	23,550.9	삼성전자우	-17,227.9
KB금융	14,796.5	SK바이오사이언스	-5,631.2	한화솔루션	14,298.5	SK하이닉스	-14,805.2
KODEX 200	14,378.0	삼성SDI	-5,023.7	SK텔레콤	13,626.0	HMM	-11,798.4
현대중공업	9,372.4	F&F	-4,257.5	TIGER 200	12,207.1	삼성SDI	-9,545.6
일진머티리얼즈	7,141.6	DB하이텍	-4,060.8	삼성바이오로직스	8,291.8	NAVER	-8,982.0
한화솔루션	4,986.0	CJ제일제당	-3,196.2	S-Oil	8,080.7	LG생활건강	-6,572.0
LG화학	4,820.5	SK바이오팜	-2,895.0	현대중공업	5,654.7	LG전자	-5,962.6
포스코케미칼	4,308.2	NAVER	-2,605.2	SK이노베이션	5,353.2	키움증권	-5,101.4
기아	3,556.8	신원	-2,540.4	HANARO 200	5,019.9	현대미포조선	-4,042.9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TIGER 2차전지테마	51,042.2	KODEX 코스닥 150	-1,717.5	KODEX 200	8,684.8	SK하이닉스	-7,357.0
KODEX 2차전지산업	39,409.2	KODEX WTI원유선물(H)	-914.2	SK이노베이션	3,989.6	삼성전자	-3,955.6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16,469.7	제이알글로벌리츠	-862.9	한화솔루션	3,080.4	TIGER 200	-2,927.6
KODEX 200	5,391.3	롯데정밀화학	-661.1	KODEX 코스피	2,956.3	삼성바이오로직스	-2,198.4
KODEX 레버리지	2,845.7	LG전자	-637.9	롯데정밀화학	2,349.8	NAVER	-1,954.6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	1,941.3	KINDEX 미국S&P500	-388.0	하이브	2,149.1	SK바이오사이언스	-1,832.7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1,816.6	SK하이닉스	-326.9	크래프톤	1,993.2	KODEX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1,472.1
TIGER KRX2차전지K-뉴딜	1,715.2	KOSEF 미국달러선물	-318.6	우리금융지주	1,970.7	삼성전자우	-1,288.9
LG생활건강	1,688.7	SK텔레콤	-318.3	KB금융	1,840.1	삼성SDI	-1,245.7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1,620.7	TIGER 200	-298.4	KODEX 단기채권PLUS	1,636.2	HMM	-1,156.8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SK이노베이션	44,626.5	36,975.1	삼성전자	-417,976.9	-185,898.4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7,833.9	32,007.1	SK하이닉스	-91,196.9	-66,707.6
KB금융	26,500.4	9,151.2	삼성전자우	-79,461.2	-19,413.3
크래프톤	6,054.0	22,038.6	KODEX 레버리지	-9,167.8	-67,995.9
현대중공업	2,388.2	18,303.0	HMM	-31,904.7	-17,155.7
일진머티리얼즈	9,750.5	10,223.0	카카오	-21,679.4	-12,067.1
SK텔레콤	7,027.0	7,120.3	LG전자	-5,929.3	-26,622.1
OCI	4,628.9	9,072.0	NAVER	-4,685.5	-24,370.9
기아	4,703.8	7,910.6	셀트리온	-15,959.8	-9,060.7
엔씨소프트	5,697.9	5,697.4	삼성전기	-10,786.2	-10,852.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등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711.3	엘앤에프	-11,428.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476.8	엘앤에프	-7,383.5
데브시스터즈	3,705.4	에코프로비엠	-6,837.8	에코프로	1,510.7	에코프로비엠	-6,016.9
위메이드	2,635.1	비에이치	-3,464.9	에스엠	1,500.4	아프리카TV	-1,948.7
캠트로스	2,500.7	아프리카TV	-3,409.7	천보	1,242.4	덕산네오룩스	-1,715.9
국전약품	2,378.3	덕산테크피아	-3,227.1	바이오니아	1,200.6	에스티팜	-1,501.2
보광산업	1,567.2	에스티팜	-3,163.2	유바이오로직스	1,142.2	제넥신	-1,366.4
팜스토리	1,273.1	엔케이맥스	-2,960.8	JYP Ent.	898.8	테크윙	-1,342.9
네패스아크	1,207.6	덕산네오룩스	-2,404.2	휴온스글로벌	857.1	동진세미캠	-942.5
상신이디피	1,038.2	천보	-2,330.1	모두투어	836.4	키이스트	-789.3
하나머티리얼즈	824.7	실리콘투	-1,979.3	조이시티	749.6	슈퍼젠코리아	-758.5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CJ ENM	413.7	나스미디어	-70.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802.3	에코프로비엠	-962.2
에스엠	143.6	아프리카TV	-61.2	위메이드	953.6	테스나	-591.3
풀어비스	85.8	테스나	-58.4	에스엠	633.5	오스템임플란트	-462.5
스튜디오드래곤	61.1	엘앤에프	-54.8	천보	342.8	바이젠셀	-448.0
메드팩토	60.5	뷰웍스	-54.3	네패스아크	298.0	서울옥션	-412.8
상아프론테크	27.6	네패스	-51.7	이오테크닉스	281.3	오스코텍	-370.6
동화기업	26.3	팜스	-44.3	동국제약	277.5	ISC	-363.9
에스티팜	25.9	제이씨케미칼	-37.4	이앤디	235.9	하이비전시스템	-296.7
유니테스트	17.4	덕산네오룩스	-31.4	씨젠	208.2	에코프로	-294.9
JYP Ent.	17.4	ISC	-28.6	하나머티리얼즈	208.0	CJ ENM	-290.2

KOSDAO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캠트로스	6,272.1	893.1	실리콘투	-6,684.5	-36,709.6		
국전약품	4,322.2	2,367.7	에코프로비엠	-28,624.5	-3,261.8		
씨아이에스	4,210.6	2,221.9	엘앤에프	-987.3	-18,367.7		
네이처셀	5,840.8	55.7	원익IPS	-8,614.6	-1,309.6		
데브시스터즈	2,023.4	3,794.6	현대바이오	-8,102.8	-595.5		
대아티아이	5,309.3	17.9	에스티팜	-1,343.1	-5,951.4		
에코프로에이치엔	1,621.6	2,421.1	에스앤디	-361.3	-6,729.4		
셀리드	3,377.1	558.6	에스엠	-4,275.4	-1,191.6		
에코프로	545.3	3,119.4	EG	-2,123.6	-1,363.7		
원익QnC	2,419.3	137.7	바이오리더스	-1,918.2	-1,547.3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금융시장 주요 지표 I

2021. 9. 30 (목)

한국/아시아

(p, %)

	Price	1D	1W	1M	3M	1Y
KOSPI (9/29)	3,060.27	-1.22	-2.55	-2.67	-6.76	31.46
KOSDAQ (9/29)	1,001.46	-1.09	-4.27	-2.94	-3.30	18.08
KOSPI200 (9/29)	400.09	-1.50	-2.65	-2.77	-8.31	29.29
일본 NIKKEI225 (9/29)	29,544.29	-2.12	-0.32	6.32	2.92	25.51
중국 상해종합 (9/29)	3,536.29	-1.83	-2.54	0.23	-1.46	9.67
홍콩恒生 (9/29)	24,663.50	0.67	1.82	-3.43	-14.45	5.96
홍콩 HSCCI (9/29)	8,760.44	0.46	1.39	-2.62	-17.85	-5.61
대만 TWSE (9/29)	16,855.46	-1.90	-0.42	-3.11	-4.85	35.19
인도 SENSEX (9/29)	59,667.60	0.00	1.26	4.88	14.05	57.13
베트남 VSI (9/29)	1,339.21	-0.01	-0.85	0.83	-5.50	48.15
인도네시아 JCI (9/29)	6,162.55	0.81	0.89	0.29	2.61	26.31

환율

(각국 통화 단위, %)

	Price	1D	1W	1M	3M	1Y
원/달러 (9/29)	1,182.04	-0.22	-0.14	1.33	4.35	1.06
달러/유로 (9/29)	1.16	-0.73	-0.76	-1.69	-2.13	-1.24
엔/달러 (9/29)	111.96	0.41	1.99	1.86	0.39	5.96
원/엔(100엔) (9/29)	1,060.84	-0.40	-1.47	0.00	4.35	-4.11
위안/달러 (9/29)	6.47	0.16	0.13	0.06	0.03	-5.06
달러인덱스 (9/29)	94.34	0.61	0.94	1.82	1.88	0.48
원/해알 (9/29)	218.27	0.05	-2.47	-2.95	-2.70	5.18
해알/달러 (9/29)	5.41	-0.28	2.36	4.43	7.23	-3.91

국내금리/채권

(%, bp)

	Price	1D	1W	1M	3M	1Y
한국 기준금리 (9/29)	0.75	0.00	0.00	0.00	25.00	25.00
CD(91일) (9/29)	1.04	0.00	3.00	12.00	35.00	41.00
LIBOR(3개월) (9/28)	0.13	-0.03	0.31	1.16	-1.43	-8.89
국고3년 (9/29)	1.60	-0.60	6.80	20.50	13.40	75.70
국고10년 (9/29)	2.22	-3.30	15.50	31.00	13.30	79.30
회사채3년(AA-) (9/29)	2.06	-0.40	7.90	22.50	8.20	-13.60

해외 채권

(%, bp, 하이일드/리츠지수 변화율: %)

	Price	1D	1W	1M	3M	1Y
미국채 2년 (9/29)	0.29	-1.20	3.90	8.90	3.50	16.60
미국채 10년 (9/29)	1.52	-2.10	21.60	24.00	5.70	86.70
독일국채 10년 (9/29)	-0.21	-1.40	11.10	22.60	-1.20	33.20
일본국채 10년 (9/29)	0.08	-0.70	3.90	5.60	3.60	6.10
인도국채 10년 (9/29)	6.21	-2.30	6.70	-1.90	16.70	16.90
중국국채 10년 (9/29)	2.87	-1.30	0.20	1.20	-22.70	-27.20
브라질국채 10년 (9/28)	11.12	4.50	29.80	85.20	203.20	371.40
미국하이일드채권지수(p) (9/28)	2,443.88	-0.27	-0.26	0.21	0.88	11.72
FTSE글로벌리츠지수(p) (9/29)	3,434.28	0.23	-2.28	-4.32	0.79	36.34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유럽

(p, %)

	Price	1D	1W	1M	3M	1Y
미국 DowJones (9/29)	34,390.72	0.26	0.39	-2.85	-0.70	25.27
미국 S&P500 (9/29)	4,359.46	0.16	-0.82	-3.74	0.91	30.70
미국 NASDAQ (9/29)	14,512.44	-0.24	-2.58	-4.94	-0.07	30.92
유로 STOXX50 (9/29)	4,080.22	0.53	-1.69	-2.82	0.03	26.94
독일 DAX30 (9/29)	15,365.27	0.77	-0.91	-3.29	-1.53	19.80
영국 FTSE100 (9/29)	7,108.16	1.14	0.35	-0.56	-0.24	20.53
브라질 보베스파 (9/29)	111,107.00	0.89	-0.30	-7.21	-11.59	18.73
러시아 RTS(\$) (9/29)	1,756.52	0.01	0.66	4.26	6.03	51.99
필라델피아반도체 (9/29)	3,263.84	-1.53	-4.60	-5.30	-0.95	45.54
나스닥헬스케어 (9/29)	1,237.07	-0.41	-4.56	-5.22	-3.93	19.11
VIX (9/29)	22.56	-2.97	8.10	39.35	45.74	-14.12

에너지

(US\$, %)

	Price	1D	1W	1M	3M	1Y
원유 WTI (9/29)	74.83	-0.61	3.60	8.12	-0.53	90.46
원유 Brent (9/29)	78.64	-0.57	3.22	7.12	3.69	91.66
원유 Dubai (9/29)	75.17	-2.59	3.21	8.72	1.97	83.39
휘발유 NYMEX (9/29)	222.93	1.24	4.96	-3.61	-1.69	85.51
천연가스 NYMEX (9/29)	5.48	-6.23	13.99	27.22	49.60	113.86
석탄 ICE (9/29)	208.50	3.06	21.22	39.89	70.55	265.47
플라실리콘 (9/29)	32.62	13.30	13.30	16.50	18.06	202.04
태양광 모듈 (9/29)	0.20	4.08	4.08	4.08	2.00	19.30

금속

(US\$, %)

	Price	1D	1W	1M	3M	1Y
철광석 DCE(위안) (9/29)	672.00	-2.89	2.67	-30.04	-50.07	-26.84
중국 열연(위안) (9/29)	5,801.00	0.40	-0.03	2.40	6.81	50.56
구리 LME (9/28)	9,260.00	-0.73	1.68	-0.91	-1.55	40.63
알루미늄 LME (9/28)	2,916.00	0.41	1.30	9.81	15.03	64.56
금 COMEX (9/29)	1,721.50	-0.83	-3.11	-4.88	-3.11	-9.12
은 COMEX (9/29)	21.49	-4.21	-6.05	-10.33	-17.60	-12.11

농산물/운송/반도체

(US\$, %)

	Price	1D	1W	1M	3M	1Y
옥수수 CBOT (9/29)	539.00	1.22	2.57	-0.23	-25.11	47.77
소맥 CBOT (9/29)	710.25	0.53	0.64	0.21	7.86	29.25
대두 CBOT (9/29)	1,283.75	0.53	0.08	-1.61	-11.27	29.28
설탕 ICE (9/29)	18.94	-0.21	-2.02	-6.33	5.57	45.80
천연 고무 TOCOM(엔) (9/29)	193.90	-0.15	3.97	-0.56	-13.24	-13.63
BDI (p) (9/28)	4,962.00	5.19	12.52	17.17	46.67	200.00
SCFI (p) (9/24)	4,643.79	0.46	0.46	7.00	22.68	229.45
DDR4 8G (9/29)	3.98	-1.97	-3.40	-9.13	-17.94	46.32
NAND TLC 128G (9/29)	2.06	0.00	0.00	-1.44	-0.48	24.10

금융시장 주요 지표 II

2021. 9. 30 (목)

유가증권시장			09/29 (수)	09/28 (화)	09/27 (월)	09/24 (금)	09/23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PI		3,060.27	3,097.92	3,133.64	3,125.24	3,127.58
	이동평균	20일	3,148.35	3,152.03	3,153.56	3,154.22	3,154.87
		60일	3,196.24	3,199.94	3,203.25	3,205.80	3,208.75
		120일	3,201.30	3,201.86	3,202.05	3,201.88	3,201.56
	이격도	20일	97.20	98.28	99.37	99.08	99.13
		60일	95.75	96.81	97.83	97.49	97.47
	거래대금(억원)		151,370.1	146,587.3	122,669.7	125,582.4	140,091.4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50	60	60	50	50
	ADR		80.46	88.32	90.29	96.16	101.64
코스닥시장			09/29 (수)	09/28 (화)	09/27 (월)	09/24 (금)	09/23 (목)
가격 및 거래량 지표	KOSDAQ		1,001.46	1,012.51	1,034.82	1,037.03	1,036.26
	이동평균	20일	1,037.44	1,038.54	1,038.94	1,038.09	1,036.90
		60일	1,037.08	1,037.65	1,037.94	1,037.74	1,037.42
		120일	1,015.49	1,015.21	1,014.86	1,014.32	1,013.72
	이격도	20일	96.53	97.49	99.60	99.90	99.94
		60일	96.57	97.58	99.70	99.93	99.89
	거래대금(억원)		102,310.7	110,580.8	93,910.6	116,090.4	89,448.6
시장지표	투자심리도		40	50	50	50	50
	ADR		70.17	77.91	79.69	83.24	101.64
자금지표			09/29 (수)	09/28 (화)	09/27 (월)	09/24 (금)	09/23 (목)
국고채 수익률(3년, %)			1.60	1.61	1.57	1.58	1.56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04	2.07	2.01	2.03	2.01
원/달러 환율(원)			1,182.04	1,184.60	1,176.55	1,176.67	1,175.78
원/100엔 환율(원)			1,060.84	1,065.09	1,061.12	1,065.51	1,064.85
CALL금리(%)			-	0.77	0.72	0.75	0.74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80	-603	130	95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330	353	78	-4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10	55	18	-9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1,123	1,041	-318	-854
MMF 잔고(억원)			-	1,507,721	1,504,111	1,509,659	1,519,086
고객예탁금(억원)			-	684,443	686,219	678,228	694,882
미수금(억원)			-	3,299	2,687	2,108	2,356
신용잔고(억원)			-	250,474	251,487	252,840	253,536
해외 ETF 자금유출입			09/29 (수)	09/28 (화)	09/27 (월)	09/24 (금)	09/23 (목)
한국 관련 ETF(억원)			-	-	-	-	-69.0
이머징 관련 ETF(억원)			-	-17.1	-14.5	115.2	7.5
아시아 관련 ETF(억원)			0.1	-29.9	-31.7	-86.7	0.6
글로벌(선진) 관련 ETF(억원)			-	31.3	8.9	97.4	98.5
Total(억원)			0.1	-15.8	-37.4	125.9	37.6

* 해외상장 ETF는 1) 미국, 유럽, 홍콩 시장에 상장된 한국 노출도가 있는 ETF를 모두 선별한 후, 2) 동 ETF들의 일간 자금유입액 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계산하여 총합한 액수.

추종 인덱스의 리밸런싱은 분기별로 이뤄지나 비중은 지수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추정치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음